

수업 순서

한국 현대소설의 역사적 전개3





- ▶ ① 황순원의 소설「소나기」를 읽고 (파일 업로드)
 - ② 드라마로 제작된 <소나기>를 감상한 후 (TV문학관, 유튜브 링크 공유)
 - ③ 소설의 특징을 중심으로 소설과 드라마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 ▶ 손으로 써서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하여 제출
- ▶ 스마트캠퍼스 과제 게시판에 제출 마감: 6월 14일(화) 23시 59분 (마감 시간 이후 제출 불가)



01. 식민지 상황과 근대소설의 양상



소설의 양식적 확대와 주제의 다양성

▶ 193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군국주의 강화, 사상적 탄압

▶ 집단적 이념 추구의 경향 → 일상적 개인의 삶에 기초

조선 프로예맹의 해체 이후

▶ 소설이라는 양식을 통해 현실을 어떻게 그려내야 하는가

▶ 장편소설의 양식 확대

대표적 장편소설

▶ 염상섭, 『삼대』(1931)

▶ 채만식, 『탁류』(1938)- 『태평천하』(1940)

▶ 박태원, 『천변풍경』(1937)

역사소설의 등장

▶ 홍명희, 『임꺽정』(1939)

▶ 김동인, 『운현궁의 봄』(1934)

▶ 현진건, 『무영탑』(1939)박종화, 『금삼의 피』(1936) 등



02. 모더니즘의 기법과 정신



모더니즘적 전환의 실체

▶ 도시와 시정의 일상에 묶여 있는 개인의 모습

▶ 개인적 주체의 내면과 숨겨진 욕망의 실체를 드러내는 상 징적 기법과 심리주의적 접근

▶ 성적 욕망에 대한 관심, 일상적인 것에 대한 의미 부여, 시 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의 특징

모더니즘의 대표 소설가

▶ 박태원



▶ 이효석

▶이상









「소설가구보씨의일일」 「성탄제」

「달밤」 「가마귀」

「돈(豚)」 「메밀꽃 필 무렵」

「지주회시」 「날개」

이상, 「날개」(1936)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 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오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리미 수효를 헤어 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따뜻하다.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똑 금봉 어 지느러미처럼 흐늑흐늑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 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 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 린 정량을 나에게 먹여 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하였나? 정말이지 아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내가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논리)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辯解)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 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이때 뚜-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렸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 오다.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럽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사전)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하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03. 풍자와 해학, 토속 세계와 전통



풍자와 해학, 토속 세계와 전통

▶ 풍자성

▶ 해학성

▶ 토속성

풍자와 해학, 전통의 대표 소설가







▶ 김동리









「레디메이드인생_ 「치숙」

「레디메이드인생」「김강사와T교수」

「봄·봄」 「동백꽃」

「무녀도」 「황토기」

김유정, 「봄봄」(1935)

"강인님! 인젠 저……."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성례구 뭐구 미처 자라야지!"

하고 만다.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삼 년 하고 꼬박이 일곱 달 동안을 했다.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겐지 짜장 영문 모른다. 일을 좀더 갈 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이니까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알 말이 많다. 허지만 점순이가 안직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째 볼 수 없이 그만 병병하고 만다.

이래서 나는 애최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이태면 이태, 삼 년이면 삼 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해야 원 할 것이다. 덮어놓고 딸이 자라는 대로 성례를 시켜 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굴만 알았지 볼베기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라.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린하라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 왔다. 그럼 말이다,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채려서. '어참, 너 일 많이 했다. 고만 장가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이 아니냐.

시치마를 딱 떼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지레 펄펄 뛰고 이 야단이다. 명색이 좋아 데릴사위지 일하기에 싱겁기도 할 뿐더러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숙맥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다.

언젠가는 하도 갑갑해서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 키를 한 번 제 볼까 했다. 마는 우리는 강인님이 내외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 서 이야기도 한 마디 하는 법 없다. 우물길에서 언제나 마주실 적이면 겨우 눈어림으로 제 보고 하는 것인데 그럴 적마다 나는 저만짐 가서

"제에미 키두!"

하고 논둑에다 침을 퉤, 뱉는다. 아무리 잘 봐야 내 겨드랑(다른 사람보다 좀 크긴 하지만) 밑에서 넘을락말락 밤낮 요 모양이다

개, 돼지는 푹푹 크는데 왜 이리도 사람은 안 크는지,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 보았다. 아하, 물동이를 자꾸 이니까 빡다귀가 움츠라드나 보다, 하고 내가 변춧년즈시 그 물을 대신 길어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러 가면 서낭당에 물을 올려놓고, '점순이의 키 좀 크게 해 줍소사. 그러면 담엔 딱 갖다 놓고 고사 드립죠니까.' 하고, 지성도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니다. 어떻게 돼먹은 킨지 이래도 막무가내니…….

그래 내 어걱께 싸운 것이지 결코 강인님이 밉다든가 해서가 아니다. 모를 붓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또 싱겁다. 이 벼가 자라서 검순이가 먹고 좀 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못할 걸 내 심어서 뭘 하는 거냐, 해마다 앞으로 축 거불지는 강인님의 아랫배(가 너무 먹는 걸 모르고 냇병이라나, 그 배)를 불리기 위하여 심 곤 조금도 싶지 않다. "아이구 배야!"

난 모를 붓다 말고 배를 쓰다듬으면서도 그대루 논둑으로 기어올랐다. 그리고 겨드랑에 깼던 벼 담긴 키를 그냥 땅바닥에 털썩 떨어지며 나도 털썩 주저앉았다. 일이 암만 바빠도 나 배 아프면 고만이니까. 아픈 사람이 누가 일을 하느냐. 파릇파릇 돋아 오른 둘 한 숲을 뜯어 들고 다리의 거머리를 쑥쑥 문대며 강인님의 얼굴 을 쳐다보았다. 논 가운데서 강인님도 이상한 눈을 해 가지고 한참 날 노려보더니.

"넌 이 자식, 왜 또 이래 응?"

"배가 좀 아파서유!"

하고 풀 위에 슬며시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 저도 논에서 철벙철벙 둑으로 올라오더니 갑은 참 내 멱살을 응켜갑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

"이 자식아, 일허다 말면 누굴 망해 놀 속셈이냐. 이 대가릴 까놀 자식?"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는냐.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아 세 놓고 '욕필이(분 이름이 봉필이니까),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지 두루 인심을 잃었다. 허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음의 배 감봉 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이 마름이란 욕 갈 하고, 사람 갈 지고, 그리고 생김 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하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똑 됐다. 강인에게 닭 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예별는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 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똑똑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고 술도 먹이고 안달채신으로 돌아지면 놈이 그 땅을 슬쩍 돌라안는다. 이 바람에 장인님 집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 한 놈이 절로 엉금엉금 기어들고, 동리 사람들은 그 욕을 다 먹어 가면서도 그래도 곱실곱실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소리할 계계가 못 된다. 뒷생각은 못 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 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히 쏜 침만 삼킨다. 난 그 속을 퍽 잘 안다.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참 바쁜 때인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니까 늦잠 잔다고 돌멩이를 접어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삐게 해 놨다. 사날씩이나 건승 끙끙, 않았더니 중당에는 거반 울상이 되지 않았는가.

"얘,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 갈에 벼 잘 되면 너 장가들지 않니."

그래 귀가 번쩍 뜨여서 그 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를 품 들일 논을 혼자 살아 놓으니까 장인님도 눈깔이 커다랗게 놀랐다. 그럼 정말로 가들에 와서 혼인을 시켜 줘야 온 경우가 옮지 않겠나. 볏섬을 척척 들여쌓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리키며,

"이 자식아, 미처 커야지. 조걸 무슨 혼인을 한다구 그러니 원!"

하고 남 낯짝만 붉혀 주고 고만이다.

골김에 그저 이놈의 강인님, 하고 댓돌에다 메꼰코 우리 고향으로 내빨까 하다가 꾹꾹 참고 말았다. 참말이지 난 이 골 하고는 집으로 차마 못 간다. 강가를 들러 갔다가 오죽 못났어야 그대로 쫓겨왔느냐고 손가락길을 받을 테니까.



04. 여성작가와 여성주의의 등장



여성주의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

▶ 박화성, 최정희, 강경애, 이선희, 백신애 등 여성작가의 등장

▶ '여류'작가 또는 '여류'문학이라는 성적 차별 의식

1930년대 대표적 여성 소설가

『인간문제』

「비탈」

▶ 박화성 ▶ 강경애 ▶최정희 ▶ 백신애 「하수도공사」 「지하촌」 「꺼래이」 「흉가」

「지맥」.「인맥」.「천맥」 「아름다운 노을」

최정희, 「흉가」(1937)

의 떨리는 영유반이 없고 내가 〈어머니!〉하고 부른 내

울었을까 혼저녁 닭이 울면 불길한 일이 생긴다고 하지 않 나는 새벽이면 꼭 깨시는 습관이신데。 그러면 닭이 초저녁에 아직 새벽이 안됐단 말인가 아닭이 확실히 울었는데。 어머

서 튀를 해 고아서 먹었다。 변이 생긴다고 할머니가 당장 그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 죽여 조저녁에 수탉이〈교옥교오〉하고 활개를 치며 울면 무슨 큰 전에 우리가 시골서 어머니가 젊고 할머니가 계실 때

털을 뽑으니까 우축우축 소리가 났다。 물고 빨간 피를 철철 흘리며 두 눈탕을 쑥 내밀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놓니까 닭은 주둥아리를 길쭉이 빼내 한발이나 길쭉이 늘어진 놈을 할머니가 끓는 물에 넣어

이튿날 아침 밥 먹을 때 닭곰탕에 밥을 만아먹이면서도 할 맛있게 잘 먹지 않았는가..... 어머니는 닭이 불쌍타는 말 한 마디도 없이시길래 나도

와 마을 닭이 또 한번〈교옥교오〉을었다。

그림자가 뵈이고 앞 마을 닭의 소리가 들려서 못 견디었다。 아나는 이불을 쓰고도 서쪽 창에 어리운 달빛 속의 감나무 그것은 확실히 초저녁 담의 울음 소리로 나는 소름이 쪽 끼쳐서 그만 이불을 뒤집어쓰고 말았다。 어머니를 부를 힘도 없었다。 들렸던 까닭이었

신터 울옷 집나는 듯한 얼굴로 아이가 내게 몰면 말도 기억 당을 해가 저물어서 당을 때 자하문으로 뵈는 하늘을 넘어다 당을 해가 저물어서 당을 때 자하문으로 뵈는 하늘을 넘어다

에 있기는 하나 그래도 나는 날이 밤이면 집 주인에게 돈을 찾아가지고 이사를 하리라는 마음을 먹었다。

휘위 둘러보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 나무 앵두밭과 바위가 있을 뿐이었다。 장한 소리를 내며 벽에나가 탕 하고 자빠지자 밖을 이리저리 없는 그 문이었으나 그래도 나는 꿈 일을 생각하고 문이 힘을 들여 확 맵다 밀었다。 달빛도 감나무 그림자도 이제 있었다. 나는 또 앞 미닫이도 열었다. 다음이로 서쪽 창을 고 안방과 사이를 둔 정간 분합문부터 먼저 열었다。 벌써 이 胡친 채 옷을 가다듬지 않고 늘 하면 대로 창을 열지도 못하 있었다。닭의 소리도 안 들렸다。나는 일어나자 머리를 풀어 머니와 아이와 동생들도 일어나고 그렇게 성문같이 두껍게 보았다 이불을 벗고 눈을 떴을 때는 서쪽 창에 달빛도 감니 나는 이불 밑에서 얼마를 신고하다가 조금 그저 나를 늘 즐겁게 하는 산과 능금나무 살구꽃과

어갈 때까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 나는 문턱에 턱을 피고 앉아서 오래 그 산과 나무와 꽃과

나는 다시 누웠다. 앞 문으로 파란 하늘이 뵈었다. 그 하늘이 너무 무섭게 파란 것이 싫어서 나는 앞 문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 누웠다니 이번엔 또 서쪽 참과 안방과 사이를 둔어간 분함은 열린 것이 쓸데없는 구멍이 빵하니 뚫린 듯 싶어서 다시 일어나 그 양쪽 문도 마지 닫아버리고 말았다. 그랬다니 방이 몹시 우층층해지며 또 무지워졌다. 중과 출물인 하는데가 하면 합성에 하구 나를 취해 돌아 돌였다.

을 뛰쳐 나오지 않을까。 있는가 이 저녁쯤은 그 미친 안주인이란 여자가 꼭 그 시형 집 어쩌면 좋은가……집을 옮겨야 할 텐데……집을 옮기자면

鲁匹고 입을 씰룩거리며 가까와져 왔다。 여기서 죽고 말아야 하는 건가。 방투 얼이나마나 하겠구。.....그러니 아프고 무섭고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은편 벽의 탈바가지가 눈을 부 마치 움직이는 물체

「对对 生 웬일일까?」

도 무서워서 내 방에 못 있고 안방으로 건너갔다. 집을 들면 나는 벌떡 일어나 그것을 떼어 보면 불수록 더 무서운 표정을 짓는데는 어쩌는 수가 탈바가지를 걸어놓고 좋아하던 일을 생각하면서 나는 안방 날 내 방을 정하고 테이블라 의자와 책을 정도한 후 벽에 그 아랫목에 가서 누웠다。 나는 눈을 똑바로 뜨고 그 탈바가지를 바라보았다。 하나 테이블 때에 집어넣고 그러고

고 아이는 동무를 따라나가고 어머니나 내가 정말 음살인 줄 아시고 약을 지어다가 달이시기까지 나는 조용한 그 아랫목 그리고 또 주름살 잡힌 어머니의 얼굴도 바라보았다. 아침밥이 지난 후 누이동생은 학교에 가고 남동생도 나가

으로 지어온 것이니 무슨 소용이 있어라 그래도 나는 거리 会就け。 召の をなめ ひ 오르고 アクセ 出外가 利甘 학이 어느새 끊어서 악타관에 덮은 종이가 누렇게 부풀어

나에게 내 병명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나 만이 너무 크실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차람이었다. 웬일인지 눈물이 핑크르르 돌았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 안 보시게 얼른 병쪽으로 돌아누웠다.

뒷산에서 뻐국새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